

# 온라인 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 한정(주)



6월의 CEO  
박용길 대표이사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31 2층  
TEL: 02-403-9477 FAX: 031-558-5550  
interonutrition.co.kr

##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승승장구

최근 들어 각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MERS),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신종 감염병 발생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전염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비대면(Untact)'과 면역력 강화이며, 이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서 있는 기업이 바로 2003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다.

바로 한정(주)대표이사 박용길, 52세이다.

한정(주)의 박용길 대표이사는 대학 졸업 후 1인 기업을 창업하여 무역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커피와 각종 첨가물 등의 원료를 수입·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성장하여 2019년에는 약 80~100만명의 생유산균, 비타민제, 오메가3, 쏘팔메토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특화된 온라인 강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 '인테로' 브랜드, 2019년 매출 120억원 달성

현재 한정(주)은 '인테로(Intero)'라는 브랜드와 '메이플트리(Mapletree)'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자회사 포함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대면'이 각종 분야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용길 대표이사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일부 대기업 브랜드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는 것이다. 다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판매·유통 플랫폼 환경을 적극 활용하며,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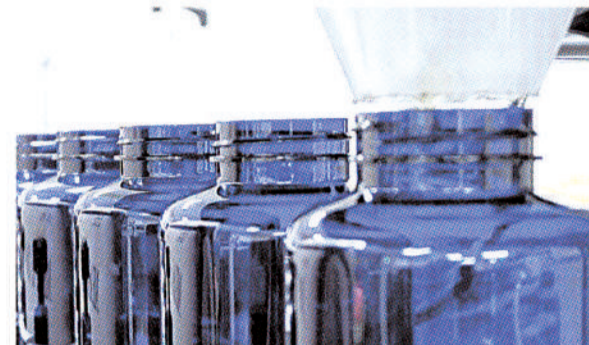
적극적인 마케팅 또한 한정(주)의 성장 전략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여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이라도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블로그 및 SNS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직원들을 영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 발전

한정(주)에는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1명당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직원 복지이다.

박용길 대표이사가 창업당시부터 만들고 싶었던 회사는 "출근하고 싶은 회사"였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를 만들어 갔다. 예를 들어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치 카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근무여건을 안락하게 하였으며, 조식 및 중식 제공, 근무시간 및 휴일 보장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러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유치가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성장과 함께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장기근속하는 직원들이 많은 가운데 직원 및 회사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박용길 대표이사의 강한 의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헬스케어 관련 사업 각광 '코로나 시대'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한정(주)

헬스케어 사업분야가 향후 전망이 밝은 것 역시 한정(주)에게 큰 기회이다. 고령화시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 유통망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좋은 제품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정(주)은 빠른 시장조사와 적극적인 투자로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 제품을 대량 유통하고 있으며, 식약처 인증을 통해 더욱 믿고 복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있어 한발짝 앞서 뛰어가는 한정(주)이지만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 2013년 남양주시로 이전한 뒤 다시 급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용길 대표이사는 한정(주)을 헬스케어 관련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 100% 유기농 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 비즈니스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정(주)의 미래가 더욱 밝게 기대된다.

